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2014년 갑오년(甲午年) 육계산업 도약을 준비하자

육계산업 안정화 위해 총체적인 노력 필요

2013년을 돌아보며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다. 말의 기운을 받아 2014년도에는 육계산업에 중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2013년도 육계산업은 불황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육계산지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등 무난한 한해를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업계의 입식조절 노력과 고육지책으로 실시한 종계도태사업을 통해 가격 회복을 끌어냈지만 이는 불황을 연기시켰을 뿐 시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다. 육계산업은 내년에 불황이 예상되면서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2013년을 잠시 돌아보면 축산계열화 사업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계열화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면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으며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 수의사처방제 시행 등이 새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도 진행 중인 한·중 FTA협상은 값싼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양계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미 육계 모든 제품에 대해 양허제 외를 요청한 상태이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금년 육계산업 불황예고

금년의 병아리 가격도 무난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11월까지 평균 가격이 58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407원 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종계의 입식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육용종계 입식 물량은 720만수가 넘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694만수에 비해 3.7%가 증가한 물량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실용계 생산잠재력은 2월 이후 이전 물량보다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육계불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당초 우려와 달리 도계 마릿수가 감소하고, 방사능 유출 소식에 수산물 대체수요가 증가하면서 육계 산지가격이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도 가격 상승은 육계 산업의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보다는 고육지책에 불과해 2014년의 육계산업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에는 육계 산업의 밝은 희망을 위해서 산업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AI 등 질병예방에 관심

철새에서 H7형 고병원성 AI 양성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아시아 등 주변국에

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HPAI 발생 이후 2~3년 주기로 국내산업을 뒤흔들어 놓았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가 있다. 겨울철 새가 국내에 날아와 서식하고 있으며 겨울철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질병예방은 철저한 차단 방역에 있다. 농장에 들어갈 때는 계사 전용 장화를 갈아신고 방역복을 착용한 후 관리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 2,500㎡ 이상에서 금년에는 1,400~2,500㎡까지 확대되며, 3년 이상 농장 경영자는 8시간, 3년 미만 농가는 12시간 허가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교육을 받은 농가는 2년후 6시간 보수교육을 받으면 된다.

금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중 하나는 부화장에서 ND 또는 ND+IB 혼합백신 중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과거 ND백신만 정부지원이 이루어졌던 반면, 혼합백신으로 선택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농가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 높은 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

었다. 다행히 농가부담도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혼합백신 후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전의 사양관리를 그대로 해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제'가 육계분야에 시행된다. 동물복지인증제는 이미 산란계에서 2012년 3월 시작한 이후 지난해는 돼지, 금년부터는 육계, 내년에는 한우농장에 시행된다. 산란계는 현재까지 44개 농장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생산·소비·유통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직불제 도입을 위한 용역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육계 동물복지 인증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조만간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은 한·중 FTA 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전망했듯이 업계는 지속적인 종계 감축으로 닭고기 공급과잉을 막아야 한다. 더불어 단순한 마케팅과 홍보가 아닌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시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과 레시피 개발 보급으로 닭고기 소비를 촉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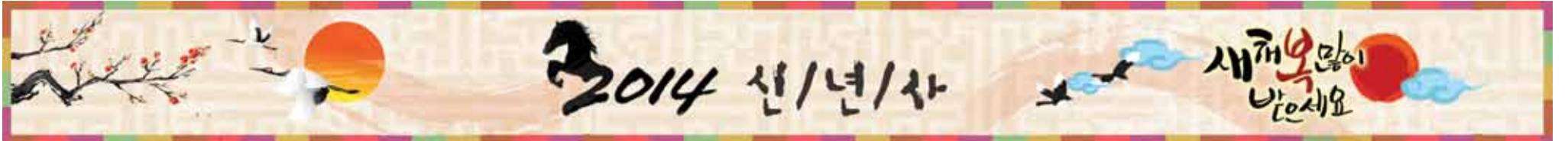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수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나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 홍 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육계 산업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닭고기자조금사업에 계열사까지 참여하면서 외형적인 확대는 물론 산업전체가 참여하는 의무 자조금 본연의 모습을 마련하였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의 기틀이 조성되었습니다. 축산계열화사업을 근거로 육계표준계약서, 농가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갖추어져 불공정 계약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수급조절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닭고기자조금을 통해 종계도태사업을 전개하여 수급조절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입육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계협회,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등 전업계가 뭉쳐서 대형마트 수입육 반대집회도 활발히 전개하여, 대형마트와 수입육의 차단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제2기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거를 통해 제3기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앞으로 4년 간 닭고기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와 같이 2014년에도 육계산업계에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2012년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하면서 육계산업을 비롯해 전 농수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한·중 FTA 협상이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현재 축산단체에서는 국민의 식량자원을 책임지는 농업분야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런 상황에서 우리닭고기 산업도 적극적인 소비홍보를 통하여 산업전체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도계장 및 농장이 과잉되어있는 상황에서 소비확대만이 위기에 빠진 농가와 계열사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2014년에는 다양한 국제경기가 예상되어 있어 정체되어 있는 닭고기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월에는 소치동계 올림픽, 6~7월에는 브라질월드컵, 9~10월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예상되어 있어 닭고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고기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내산 닭고기의 위생학적 안전성과 신선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축산업 허가제에서 농

가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닭고기자조금 소식지나 농가교육을 통해 알려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올 한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육계산업의 발전과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닭고기자조금은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며 정부에 농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육계산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자조금사업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새로 출범한 제3기 대의원들과 함께 육계산업이 더욱 더 발전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닭고기산업의 더욱 큰 발전과 축산업자 및 농가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병 권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한 해가 지나면 우리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봅니다.

육계업계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희망으로 시작된 한해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가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계열사와 상생하기 위해 수차례 방안을 찾으려왔지만 그 현실의 벽은 높

았고 그나마 축산계열화법이 실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것도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정비하여 계열사와 농가들이 서로 불만이 없이 공정한 여건에서 육계사업을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다소 안정화되었던 육계경기가 내년에는 불황이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2010년 초 15억여원의 자조금을 대거 투입하여 50여만수의 종계를 도태하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잠시 뿐 다시 종계사육수가 늘어나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실용계 잠재력이 크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종계와 종계업계에서는 대

책없이 사육수수만을 늘릴게 아니라 서로 감축하여 적정 사육수수를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래야 산업이 안정화되고 농가 수입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생산과 소비는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백색육 고기인 닭고기가 적색육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려면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직도 농가와 계열업체에서 자조금 거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육계산업을 위해서라면 서로 합심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 말띠해는 보다 열정적이고 크게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말 제3기 닭고기

자조금 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곧 관리위원장과 대의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되면 닭고기 자조금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큰 임무가 주어질 것입니다. 2014년에는 양계협회를 위시하여 계육협회, 토종닭협회, 종계 등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자조금 활성화 및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자조금소식지가 신문으로 바뀌어 1달에 2번씩 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매번 새롭게 변모하는 소식지를 볼 때 자조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자조금소식지가 육계산업의 주요 정보지로 작용하여 우리 육계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육계인 및 관련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성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육계 농가 및 산업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청마(靑馬)의 해인 올해는 말의 힘찬 기운처럼 육계산업이 한층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연말에는 새롭게 닭고기 자조금을 이끌어 갈 제3기 대의원 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육계산업에 대한 애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닭고기자조금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내 육계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생산비 상승, 시장 개방 가속화, 환경규제 강화 등 많

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육계 농가와 계열업체가 직접 조성하는 닭고기자조금이 육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의 중심체가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닭고기자조금은 다른 축종의 자조금에 비해 규모도 훨씬 적을 뿐 아니라 거출부진으로 자조금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자조금은 농가거출금 규모와 비례해 정부지원금도 증가하는 매칭펀드 제도이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납부하는 자조금이 내 농장과 내 일터를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농가 및 계열사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가 권익 보호와 육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도 닭고기자조금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동

(사)대한양계협회 회장



육계산업의 커다란 획을 그었던 2013년 한해가 지나가고, 2014년 갑오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육계산업에 있어 괄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육계인들이 염원하던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계열업체의 참여로 자조금 납부금액을 농가와 계열업체가 함께 거출키로 하면서 목표로 하던 이상적인 닭고기자조금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발전적인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차근차근 초석을 다지며 내실을 쌓는 한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방침 속에 불도저식 FTA 추진으로 한·EU 및 한·미 FTA가 이미 타결된 바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 호주와의 FTA 협상이 체결되어 축산업계를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의 FTA 체결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입장벽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육계산업 생존을 위한 열쇠는 자조금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정부 지원감소와 축산 경영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갈수록 위축되는 축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농가 스스로가 참여하는 자조금사업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내 육계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육계자조금이 농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줄 것을 희망하며, 더욱 발전적인 자조금사업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병학

(사)한국계육협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계사년 한해가 지나가고 희망찬 갑오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계육업계의 최대 화두는 '수급조절'과 '상생'이었습니다. 2011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비 위축과 공급 과잉 등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협회에서는 자율적인 생산수급조절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육계 가격을 지지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23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다수의 계열주체에서 농가협회를 구성,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협회에서도 지난해 11월 5일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를 개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간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협회에서는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도에는 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닭고기 소비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계육업계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서로 상생하여 협회 중심으로 가격·수급 및 유통체계의 선진화, 종계와 실용계의 계획적 입식을 통한 수급조절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회에서도 불합리한 가격체계의 개선, 닭고기 포장 용기(P-box)의 표준규격 제정, 닭고기자조금을 통한 닭고기 가치 홍보 등의 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말띠 해' 중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활달하다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닭고기산업도 말처럼 힘차게 뛰어 정상궤도에 올라서기를 기대합니다.

김연수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마해의 희망찬 발걸음으로 올해 한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뤄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닭고기 산업은 FTA, DDA 등 수입육 개방에 맞서 수많은 파고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牛步萬里(우보만리)라 했습니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며,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와 같은 우직함으로 이 산업을 영위해 나간다면 작년 한 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결실을 맺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4년 한해, 회원 회원사 모두

창의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종가축 인정제는 토종닭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토종닭 '한닭'이 해외로 뻗어나가 한식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 협회는 수입산 닭고기의 차단을 위해 협회와 농민이 함께 힘을 모으며 우리 종자 토종닭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양계산업이 한층 더 발전하여 최고의 효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닭고기자조금이 다양한 정책의 추진 및 개정에 힘써 주길 바라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양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甲午年, 모든 양축농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HOT
ISSUE

0 0 2

사육비 인상보다는 사육경비 현실화가 필요

일부 계열사 1억원 농가소득은 총수입...실질소득은 2천 470만원 수준

계열사와 계약한 사육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이 2천 47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육계 사육경비 조사 및 경영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계열화 사업자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계약사육 농가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계약 사육농가들은 사육수수료가 20년 전 수준(kg당 140원)에서 동결되어 지원사육경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2010~2012년 전국 육계 계약사육농가 중 150호를 대상으로 계열사와 계약한 사육농가의 사육경비를 조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총수입은 1억 3천 222만원 수준이며 9천 906만원의 농업경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소득은 3천 315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휴면 농가가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농가를

직접 방문조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통계청의 축산 농가 총수입 조사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이번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애그리비즈니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2010~2012년 계열사와 계약한 사육농가의 평균 사육회전수는 5.6회전이며, 축사 및 시설투자 총액은 3억 6천 772만원이었다. 또한 노동비, 수도광열비, 방역 치료비 및 제재료(깔짚비), 상차

비 및 수리유지비, 임차료 등을 제외하면 농가의 실질적인 연평균 소득은 통계청의 조사보다 훨씬 더 낮은 2천 470만원이라고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는 밝혔다.

육계농가들이 타 산업 근로자와의 소득격차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 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 하에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계열사들은 조금씩 계약농가의 사육비를 인하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박탈감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1월 2일, '토종가축 인정제' 본격 시행으로 토종닭 보호방안 열린다

(사)한국토종닭협회, 토종닭 인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돼 토종닭의 보급과 확대에 나설 계획

올해부터 토종닭이 국내 가축유전자원으로 보호받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토종가축 인정제)'을 제정하여 고시하였으며, 올해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토종가축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가축을 말하며, 정부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우리맛닭과 한협3호와 같은 토종닭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에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토종닭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토종닭 인정기관은 (사)한국토종닭협회이며, 토종닭을 인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한국토종닭협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인정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바탕으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종가축 인정제를 계기로 토종닭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하며 쉽게 토종닭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토종닭의 가장 큰 특

징은 늘씬하고 긴 다리를 지닌 것이며, 약간 검정색 계통의 꼬리 깃털을 가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며 지방이 거의 없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다고 전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가축 인정제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우리맛닭과 한협3호와 같은 토종닭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식품박람회에서도 토종닭 시식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토종닭을 선보이고 토종닭 산업의 규모를 키워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마련돼

계열사의 사료 및 병아리 품질저하 문제 해결 기대...농가의 사양관리 기준도 제시돼

지난해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과 관련해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했다. 농가와 계열사간에 잦은 분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앞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농가에서 갖춰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된 만큼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공급하는 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발표하는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계열

화사업자는 사료 공급처 또는 사료성분을 변경할 경우 계약농가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명시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일방적인 사료 변경을 자제토록 했다. 병아리의 품질에 있어서 계열화사업자는 종계장의 정보를 계약농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병아리 공급 후 7일 이내 폐사율이 3% 이상일 경우에는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명시해, 병아리 품질 저하 시 계열화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또한 출하하는 가축은 도계 과정 중 유해성 세균 오염방지를 위해 상차 전 최소 3시간 이상 절식하여야 하며, 출하 전과 출하 시 날개 및 다리 등이 부러져 있지 않고 육안으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상처 등이 없어야 한다고 밝혀 계약농가의 사양관리에 대한 규정도 제시했다.

사육시설은 계약농가가 위치한 지역의 외부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단열시설이 갖추어 져야 하며, 무창시설은 점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내부 광도가 0.4룩스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적합한 조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절한 급이시설, 급수시설, 환기시

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했다. 소독 및 방역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며, 축산법에 의한 축산업 허가제 또는 등록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고시했다.

계약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와의 계약서 작성 시 본 고시((사)대한양계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성장단계별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구분	시설형태	소요면적	비고
산란계	케이지	0.05㎡/마리	
	평사	*	
산란육성계	케이지	0.025㎡/마리	100일령까지 사육
육계 10.3%	무창계사	39kg/㎡	
		강제환기	36kg/㎡
	개방계사	자연환기	33kg/㎡
	케이지	0.046㎡/마리	

*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기준으로 함

지부탐방

새로운 임원진과 새출발을 앞둔 양평 육계지부

이영근 양평지부장, “양평지역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역량을 다할 것”

12월 12일 양평육계지부에서 연말 총회를 개최하여 취재를 위해 방문했다. 총회원수 60명으로 구성된 양평육계지부는 박왕춘 지부장의 진행으로 2013년 총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박왕춘 지부장은 지난 한 해를 되새기며 경기불안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병아리 입추회전수 감소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2년의 임기를 마치는 박왕춘 지부장은 새로운 임원에게 다음 임기를 부탁하며, 본인의 임기동안 지부운영에 누가 끼치지 않았는지를 걱정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총회에서 새로운 임원 선출을 통해 이영근 신임지부장이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으로 박규덕, 김경수 회원이 추대되며 임원진의 개편이 있었다. 육계지부 총회에는 약 40여명이 참여하여 지부 운영 방침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모습이였다. 양평육계지부 회원은 약 60명으로 많은 회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운영지침에는 지부회원들의 찬성여부를 묻고 지부운영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었다. 양평육계지부는 지부사무실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운영비가 증가할 것이 부담되어 지부장과 총무가 직접 발로 뛰며 지부운영비를 절감하고 있었다. 회원수가 타지역에 비해 적은 지부도 아니라는 지부장과 총무의 자기희생이 유독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새로이 양평육계지부를 이끌어 나갈 이영근 신임지부장의 포부를 들어봤다.

이영근 지부장은 과거 5년 동안 양평지부장을 역임하였던 만큼 이미 지부운영에 있어서는 베테랑이다. 지부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워낙 자기 시간을 많이 희생하여야 하는 자리다보니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전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활동을 했던 역량을 토대로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양평지부를 다시금 책임질 예정이다. 이영근 신임지부장은 무엇보다 양평지역에서 육계를 경영하는 농가들의 경영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농가에 필요한 사업을 끊임없이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양평지부는 규모에 비해 겸손한 운영방침과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명실 공히 양평육계지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2013년 연말총회를 진행하는 박왕춘 前 지부장



새로운 임기를 맞이한 이영근 신임지부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육계질병가이드 / 전염성 빈혈의 증상

Q. 전염성 빈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전염성 빈혈(CIA ; Chicken Infectious Anemia)은 3주령 미만의 어린 닭에서 심한 빈혈증상, 피부와 근육의 출혈, 면역기관(특히 흉선) 위축과 함께 계군의 10%까지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국내에서 닭 전염성 빈혈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염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계들은 산란을 시작하는 25주령 이전에 이미 자연감염 되거나 백신을 접종하여 항체를 갖고 있으면서 모체이행항체를 후대 병아리에 전달해주며 감수성있는 3주령 미만까지 모체이행항체가 야외 감염을 미리 차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국내 종계군은 본 질병에 대한 항체를 대부분 갖고 있어, 후대 병아리는 모체이행항체에 의한 방어가 되고 있으며, 일반 농장에서는 수평감염 되어도 전혀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3주령 이상의 육계에서 자연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난계대에 의한 발병보다는 피해가 적게 나타납니다.

감염에 의한 직접적인 증상보다 준입

상형으로 면역억제를 일으켜 다른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이 표면상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료효율과 증체율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염성 빈혈의 진단은 심한 빈혈증상과 황백색 골수, 괴저성 피부 염의 동반 여부 등이 야외에서 관찰될 경우 실험실에서 항체 검사와 바이러스 분리를 통하여 확진이 가능합니다. 병증이 있는 가검물에서 분자생물학적기법(PCR)을 사용하여 진단하는 방법이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CIV바이러스는 감보로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자체의 저항성이 높아 일반적인 소독제로 잘 방어되지 않으므로 차단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주)마니커, 동결건조 분말제품 ‘순수한 닭가슴살’ 최초 출시



은 유통기한, 보관 및 휴대의 어려움, 딱딱한 식감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어 온 소비자의 불만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빵이나 샐러드, 피자에 뿌려 먹을 수도 있고 우유, 요구르트, 심지어는 아기의 이유식에도 손쉽게 타서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주)마니커는 ‘순수한 닭가슴살’이 시장에 없던 제품임을 고려하여 포장 안쪽에 사용방법을 소개해서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닭가슴살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주)마니커는 다이어트와 근육강화의 필수품, 닭가슴살이 휴대와 보관에 편리한 분말 제품을 출시했다.

(주)마니커 관계자는 어떤 성분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분말화시켜 닭가슴살의 영양과 신선함을 살린 ‘순수한 닭가슴살’을 지난해 12월 1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순수한 닭가슴살’은 닭 3마리 분량인 닭가슴살 6개(600g)를 급속 동결, 건조시켜 부피를 1/5로 줄인 뒤 미세한 분말로 만든 제품으로, 수분 함량을 76%에서 4%로 낮춰 실온에서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신선한 닭가슴살’은 웰빙시대의 대표 육류로 자리잡을 정도로 뛰어난 영양성분에도 불구하고 닭가슴살 특유의 짭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농협중앙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 전수조사 실시



이번 전수조사 결과 사업만족도는 높았으나 지원조건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육계분야 지원농가의 생산성이 타 축종에 비해 높은 4.0% 향상된 것으로 조사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남성우)는 지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상반기(6월 27일 ~ 7월 19일)와 하반기(10월 7일 ~ 11월 30일) 2회에 걸쳐 '09~'11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지원을 받은 농가 2,075호 중 1,804호(87%)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조사 내용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지원 현황 및 금액, 농가 필수업무사항(소독시설 설치 및 HACCP 등) 준수 여부 및 사업지원 전/후 농장생산성 현황, 농가의 만족도 조사 등이다.

농협중앙회의 현장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장방역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시설은 대다수 농가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HACCP 인증 및 경영기록부 작성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생산성 현황을 살펴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지원 당시보다 지원 후에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육계분야가 다른 축종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사에서 농가들의 사업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나, 지원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농장HACCP을 1년 이내에 인증받기 어려워 2년으로 완화하고 장비 및 설비구입이 소액인 경우 HACCP 인증 의무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전산경영기록부 작성에 대한 전산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자금 보조비율 확대 및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농협 축산건설팀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한 사후관리 전수조사는 사업자금 지원농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사업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농협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농립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생산성 향상률(%) : 한우 1.3↑, 낙농2.9↑, 양돈2.4↑, 육계4.0↑

축종	한우	낙농	양돈	양계(육계)	
생산성 항목	1등급출현율(%)	산유량(l/년)	MSY(두/년)	일당증체량(g)	
지원 농가 생산성	지원 전 평균(A)	68.5	8,393	18.30	45.70
	지원 후 평균(B)	69.4	8,631	18.74	47.55
	차이 (B-A)	0.90	248	0.44	1.85
	향상률 (%)	1.3	2.9	2.4	4.0
전국 생산성	2009년 (C)	46.5	8,350	15.2	41.3
	2010년	51.9	8,350	15.1	43.5
	2011년 (D)	54.1	8,379	14.5	43.2
	차이 (D-C)	7.6	29	△0.7	1.9
비교 (조사농가)	356	231	289	74	

*사후관리 조사를 통해 조사자료가 충실한 농가 950호를 분석한 자료임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계자조금 납부 협조요청 발 벗고 나서



박상현 과장, 이연중 종계부화분과위원장, 고도욱 대표(왼쪽부터)

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중)는 지난 11월 월례회의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각 계열사를 방문하여 종계자조금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0일 이연중 위원장은 체리부로(계영농산)를 방문하여 국내 닭고기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종계자조금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육용종계의 경우 계열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계열사 소유의 종계를 종계장에서 위탁사육·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개인 종계사육농가의 참여의지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자조금 참여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계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연중 위원장은 종계사육농가들도 닭고기 자조금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계열사에서도 적극 참여해 달라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최근 제정된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계열사와 종란납품계약을 맺은 종계농가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종계인들의 의견을 전하고, 계열사와 종란납품 농가간의 마찰 없는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이연중 위원장은 국내 주요 계열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종계농가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종계농가에서 직접 자조금납부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어 종계자조금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한국계육협회



2013년도 제5차 이사회 개최

최염순 부회장 선임

본회는 지난 11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염순 전무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최염순 부회장은 1952년생으로 농립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물유통과, 축산경영과 등을 거쳐 농립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염순 부회장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진행



총 1분 내외의 캠페인 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함께 맛있는 국산 닭고기를 먹고 싶게 만드는 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방송 외에도

미쓰에이 등 인기가수의 '닭고기 송' 방영

본회는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8일(일) 오후 3시 30분에 방영된 SBS 인기가요 內 캠페인 송 코너를 통해 방송 홍보를 진행했다.

본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0분간 방송되는 SBS의 최신가요 프로그램인 '인기 가요' 內의 캠페인 송 코너에 국민 첫사랑 수지가 활동 중인 걸그룹 미쓰에이(Miss A)를 활용하여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닭고기 송을 방영했다.

이날 방송에서 수지는 미쓰에이 멤버들과 함께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을 장려하는 닭고기 송을 열창하며 영상 속에서 맛있게 닭다리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자막으로 '수지처럼 골 피부 되세요'라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인터넷 뉴스 및 유튜브 등 각종 포털, 동영상 커뮤니티에서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1일(일)에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최근 한창 인기몰이 중인 신인 걸그룹 베스티의 국산 닭고기 소비 촉진 캠페인 송이 방영되었으며 그들만의 풋풋한 매력으로 미쓰에이와는 또 다른 느낌의 닭고기 송을 불렀다.

본회 정병학 회장은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활동 중인 아이돌 스타들이 국산 닭고기 예찬 송을 부름으로써 방송 시청자들은 물론 스타들을 따르는 팬 층 및 기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품질 좋고 맛도 훌륭한 국산 닭고기를 즐겨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과거 발생 분석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협조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앙기동점검반 및 시·도 합동으로 전국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실태 교차점검 결과, 소독약품 유효기간 경과제품사용, 출입구 소독실시 미흡, 소독시설 고장 방지 등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북방에서 여름을 보낸 철새들이 겨울을 맞아 이동경로를 통해 한반도로 남하하고 있으며, 대서양 동쪽 이동경로에 위치한 서유럽 국가들의 가금에 대한 AI 능동예찰검사서서 H5형 및 H7형 저병원성 AI가 연이어 검출(포르투갈, 네덜란드, 독일)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과거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분석한 결과, 발생시기는 발생 해당년도 11월 또는 12월에 발생하였으며, 최초 신고 및 발

생지역은 충북, 전북, 충남이었으며, 발생주기도 2~3년인 것으로 분석되어서 금년 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13.12.4) 및 중앙역학조사위원회 회의 시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각 회원사에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야생 철새도래지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약이 많이 사용되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 ① 소독약 자체 실태조사, ② 유효기간이 생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약품 구매 공급, ③ 사용 빈병의 회수 조건으로 신제품 공급을 반드시 이행토록 계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의 개최



계열유통분과위원회는 토종닭의 유통구조 개선 및 계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본 협회 계열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김동관)가 지난 12월 17일 대전 유성에서 열렸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으로는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해 (사)한국계육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조금 등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안건토의에서 위원들은 토종닭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계열의 역할 건에 대해 논의했

다. 특히 토종닭 백숙, 볶음탕 등 기존의 토종닭 요리에서 탈피한 토종닭 훈제, 토종삼계탕, 부분육 시장 개척 등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토의했다.

분과위는 앞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토종닭 시장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과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AI 대비, 전통시장 일제 소독 나서



산닭유통분과위원회는 전통시장 내에서 가금류를 일제 소독하기로 결정했다

산닭유통분과위 의결

최근 전통시장에서 LP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철새 도래 등 AI 위험시기를 맞아 전통시장 일제 차단방역에 나선다.

본 협회 산닭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호)는 지난해 12월 18일 충남 부여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전통시장 내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소독기로 결정했다. 분과위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총 5회

에 걸쳐 전국 일제 소독에 임하고 5월부터는 AI 여건에 따라 소독 연장 여부를 결정기로 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20여명의 위원들은 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고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최승호 부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AI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차단방역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소독함으로 차단방역에 앞장서고 AI 발생 근절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내년 토종닭 산닭의 수급대책과 전통시장 양성화 등 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가슴살 찰수수구이와 꽃감소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찰수수는 고지혈증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최고 5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이 제철인 꽃감은 기침이나 가래에도 효과가 있으며 목소리를 윤택하게 한다.

- 재 료** 닭가슴살 300g(밀간-맛소금, 후추, 마늘즙 1작은 술, 생강즙 1작은 술), 찰수수가루 1/2컵, 식용유, 새싹 20g, 실부추 50g, 배 50g
- 꽃 감 소 스** 꽃감 2개, 홍시 1개(100g), 식초 4큰 술, 연겨자 1/2큰 술, 우유 2큰 술, 매실청 1큰 술, 소금 2/3작은 술

Cooking

1. 닭가슴살은 얇게 저며 칼등으로 두들겨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고 맛소금, 후추, 마늘즙, 생강즙을 뿌려 10분간 재운다.
2. 새싹은 씻어 물기를 빼고 실부추 5cm길이로 썰고, 배는 5cm 길이로 채썬다.
3. 꽃감소스 재료를 믹서에 곱게 갈아준다.
4. ①의 가슴살에 찰수수가루를 묻혀 기름 두른 팬에 놓아 노릇하게 굽는다.
5. 접시에 구운 가슴살과 ②의 채소를 색 맞추어 담고 소스를 곁들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13			11
				10	
		12			
2	3			9	8
	4		6		
5			7		

◇ 가로풀이 ✨ ✨

- 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모임
- ②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 ④ 차를 세워 두도록 마련한 곳
- ⑤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에 받는 빛의 양, 조명도
- ⑦ 정당이나 단체의 대표로 뽑혀 회의에 참석하여 토의나 의결 따위를 행하는 사람
- ⑨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하여 신체의 각 부분을 검사하는 일 신체검사
- ⑩ 지지 아니함, 또는 실패하지 아니함
- ⑫ 인간의 정신생활에 대한 역사, 곧 예술과 사상의 정신문화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

◇ 세로풀이

- ①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는 가축
- ③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던 섬으로 이루어진 도, 2006년에 00특별자치도로 승격함
- ⑥ 대나무나 나무로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
- ⑧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기관
- ⑩ 어떠한 관리를 당하여도 기력을 잃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⑪ 주 소 이름 따위를 적어서 대문 위나 옆에 붙이는 작은 패
- ⑬ 축을 중심으로 빙빙 돌려서 드나들게 만든 문

62호 정답

방	토	파	구	조
보		역	차	
문	궐		의	숙
	이	방	금	리
파	물		단	문
금		방	굴	구



양 계 비법전수

육계농장의 저온기 최소 환기요령을 알려주세요.

육추 초기에 저온에서 사육하게 되면 출하 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므로, 저온기에는 외부의 신선한 찬 공기가 계사의 윗부분에서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저온기에 외부의 찬 공기를 계사의 윗부분으로 올려주기 위해서는 밀폐도가 중요한데, 밀폐도 즉 음압이 올라가지 않는 주요요인은 계사에 틈새가 많아 입기구가 아닌 곳으로 새 바람이 들어와서 계사 내 외부공기의 분배가 고루 이루어지지 않게 되

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용마루 부분까지 올라감으로 인해서 윗부분에 떠 있는 따뜻한 공기와 섞여서 아래 부분의 닭의 생활공간에 있는 오염된 공기와 섞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기량에 맞게 적당한 크기의 입기구를 열어서 적당한 음압이 형성되어야 외부의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계사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분배되게 된다.

특히 온도가 낮아질수록 공기 중에

수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수분포화도는 낮아져서 결로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깔짚이 질어지게 된다. 따라서 외부에서 찬 공기가 직접 닭에게 떨어지지 않고 계사 윗부분에서 잘 섞이도록 하여 수분포화도가 높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일령별로 적당한 환기를 해서 계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이 계속해서 축적되지 않도록 밖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방문자 등 외부인

S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S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